

인주의 마음

인주마을 이야기 8월 2022 제146호



2024년 10월호

우리는 치매안심마을에 산다오

삼례 신평마을은 치매안심마을이다. 구순 어르신부터 젊은 사람까지 한테 어울려 밥도 먹고 그림 공부도 같이 하며 치매라는 불청객에 슬기롭게 맞서고 있다. 만경강변에 자리 잡은 신평마을 사람들의 건강하고 넉넉한 가을 일상을 들여다봤다.

관련 기사 2-7면

사진설명: 마을회관에서 함께 점심 식사를 마친 신평마을 어르신들이 가을 별을 느끼며 함께 웃고 있다.

- 원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 ... 8-9P
- 삶의풍경 덕암 이광민 이야기 ... 10-11P
- 원주의 문화예술인들@ ... 12-13P
- 제1회 치매하삼:레 축제 현장 ... 16-17P

함께 모여 밥먹고 책놀이, 미술 수업! “우린 치매 걱정 없어~”



삼례 신평마을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청명한 하늘 아래 따뜻한 햇살이 퍼진다. 선선한 바람에 가을을 만끽하며 이웃 주민들이 함께 나누는 정겨운 대화는 오로지 이 계절에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이다. 삼례 신평마을 주민들이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따뜻한 미소를 나누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은 치매 예방과 회복을 위한 소중한 연결고리로 작용한다. 이 가을, 신평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정을 느낀다.

함께해서 즐거운 마을

2020년에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된 삼례 신평마을

은 60세 이상 고령화율, 고령자 중 치매환자 비율 5% 이상의 기준, 인구 100명이상 등의 기준을 거쳤다. 치매안심마을은 빠른 고령화 속도만큼 급증하고 있는 치매질환을 대비하기 위한 정책 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 치매환자 가족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한 인식개선사업이다. 이에 관해 주민들은 치매 안심마을로 선정된 이후로 문화 활동을 통해 주민들 사이가 더 끈끈해졌다고 전한다. 이들은 완주군 치매안심센터, 삼례도서관, 대한노인회 등 다양한 인지활동프로그램을 마을회관에서 함께하며 치매를 예방하고 있다. 종종 식사도 함께 하는데, 마을을 찾은 날에는 가을맞이 도토리묵과 함께 점심 준비가 한참이었다. 이날의 요리는 하택임(77) 경로당장이 맡았다. “회관에 모여 밥을 자주 먹어요. 일주일에 두 세

번은 모여 먹는 것 같네요. 각자 집에서 반찬을 조금씩 가져오기도 하고 회관에서 만들어 먹는데 오늘은 도토리묵이랑 콩나물 국을 준비했어요.” 주로 한 사람이 맡기보단 돌아가며 음식을 만드는데, 이들 덕에 주민들은 오전 일과를 마치고 음식을 나눠먹으며 이야기할 시간을 갖는다. 식사 준비가 모두 마무리되자, 주민들이 하나둘 회관으로 들어섰다. 서로의 손가락과 젓가락을 챙기며 익숙하게 식탁에 자리를 잡고, 도란도란 하루의 소식을 나누기 시작했다. 회관 옆집에 산다는 유순옥(90) 어르신도 자리를 함께했다. “혼자서 밥을 먹으면 잘 챙겨먹지 않는데, 이렇게 자주 회관에서 맛있는 음식 나눠 먹으니 너무 좋아.” 유귀례(86) 어르신은 텃밭을 정리하다가도 점심





마을회관에서 함께 점심을 먹은 뒤 회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주민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지난 여름에 진행했던 책놀이 프로그램 활동, 첫 미술 수업 날, 이명화 씨가 도안을 따라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식사만큼은 꼭 함께 한다고 말했다.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해. 많이 먹고 힘내서 오후에 텃밭 관리도 열심히 해야지.”
 이내 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차 북적거리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넘쳐흘렀다. 신평마을에서는 이렇게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웃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담벼락 따라 마을 한 바퀴

점심 식사 후 회관 내부를 정돈한 어르신들이 날이 좋을 때 마을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몸을 일으켰다. 나가기 전 하택임 경로당장이 립스틱 하나로 어르신들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누구는 입술에 바르고, 또 누구는 손가락으로 약간 문질러서 볼터치를 한다. 다 늙어서 무슨 소용이냐고 말하다가도 택임 씨의 손길에 얹전히 얼굴을 맡긴다. 설거지 후에 손이 거칠어졌다고 챙겨주는 로션을 냉큼 받아 바르는 사람들을 보고 박정숙(93) 어르신이 “아주 청춘이구먼”이라 말하자 다들 와르르 웃음을 터트렸다.
 어르신들의 뒤를 따라 건다가 문득 오늘처럼 점심을 자주 같이 드시냐고 물었다. 고개를 끄덕인 박정에 어르신은 “밥, 김치, 뭐 그런 것만 있어도 잘 먹는다. 우리끼리는 된장찌개 하나만 끓여도 꿀맛이다”고 말했다.
 집마다 다른 담벼락이 굽이굽이 이어진 골목길을

따라 마을 한 바퀴를 돌았다. 조금만 걸어나가면 조사마을과 맞닿아 있고, 길을 건너면 용전마을이니 금방이면 신평마을을 모두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기본적으로 느긋한 어르신들의 발걸음은 길가에 핀 꽃, 담장을 덮을 정도로 크게 자란 호박, 폭 익은 감과 석류 등을 마주칠 때면 조급해졌다. 한곳으로 우르르 몰려가 웅기중기 서서 꽃이나 열매를 구경하고 다시 걷기를 반복하다 보니 따사로운 햇볕 아래 어느새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다. 소박한 반찬 하나, 소담한 꽃 한 송이라도 어르신들에게는 즐거운 대화거리가 된다.

일주일에 한 번, 화가가 되는 시간

신평마을은 10월 8일부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가 지원하는 미술 수업을 시작했다. 지난 7월에 마무리된 노인인지활동 책놀이 프로그램 때처럼 매 수업에 고정적인 인원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적극적인 분위기다. 이날도 모두 11명의 어르신이 첫 수업에 참석했다.
 매주 화요일 2시간 동안 신평마을 어르신들은 화가로 변신해서 자신만의 아크릴화 작품을 완성하게 된다. 집으로 가져가서 장식할 수 있는 작품을 2개나 만들 수 있다는 강사의 말에 어르신들이 활짝 웃었다.
 아크릴화 작업의 첫 단계는 먹지 위 도안을 따라

그리는 것으로, 적당한 세기로 꺾꺾 눌러 그리면 캔버스에 밑그림이 그려진다. 처음에는 본인이 잘할 수 있을지, 너무 어렵지는 않을지 걱정하던 어르신들은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랫말을 흥얼거리면서 작업 속도에 더욱 불이 붙는다. 눈이 침침한데도 고개를 꼭 숙여 집중한 최귀순 어르신, 허리 아픈지도 모르고 바닥에 엎드려 연꽃을 완성하는 순옥 어르신을 비롯해 회관 내 모두가 화가가 되었다. 어딜 봐도 미간을 찌푸리고 입술을 주욱 내민 얼굴들뿐이다. 그만큼 이 순간에 푹 빠져든 것이다.

손이 빠른 몇몇 어르신들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밑그림을 완성했다. 순옥 어르신은 가장 먼저 끝내고 나서도 혹시나 연한 부분이 있을까 몇 번씩 덧그리는 꼼꼼함을 보였다. 밑그림이 잘 그려졌다는 강사의 말에 기뻐하는 귀레 어르신에 다들 “이러다 우리 마을에 화가 나오겠다”며 웃기도 했다.
 이정자(75) 어르신은 “원래 손 떨림이 심한데 그림 그리는 동안에는 집중하느라 손이 떨리는지 안 떨리는지도 몰랐다. 별짓 안 했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고 재미있다”고 말했다.
 아크릴화 작업의 첫 단계를 잘 마친 신평마을 주민들은 다음 주부터 다양한 색깔로 화폭을 채워 나갈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가지각색의 개성을 녹여낸 다채로운 작품들이 기대된다. **공**

구순 동안비결? “뭐든 즐겁게 노는 거지”

유순옥 어르신

“인지활동 관심 많고 좋아해요”
만경강 모래찜질하던 기억 생생



구순의 나이에 ‘신평마을의 동안’이라는 유순옥 어르신은 마을 회관에 모여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신평마을은 치매안심마을로 다양한 인지활동을 진행하는데 이 활동들에 가장 열정을 보이며 참여하는 순옥 어르신을 만나봤다.

순옥 어르신은 23살에 익산에서 시집을 온 뒤로 67년동안 이 마을에 살고 있다. 어르신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그 시절은 참으로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순옥 어르신은 지난날을 회상하며 어릴 적 이야기를 나눴다. “만경강 주변은 아름다운 모래사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여름이면 전주, 익산, 김제 등에서 피서객들이 아침부터 일찍 그곳으로 모여들었다”며 “은빛 모래사장에서 모래찜질을

하거나 시원한 물에 들어가 수영하며 더위를 식혔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설명했다.

어르신은 “여름이면 자식들은 수영을 하며 하루 종일 물놀이를 했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물도 깨끗하니깐 믿고 놀았다”며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기던 그 시간이 그립다고 했다.

그렇게 자연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은 어르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매일 회관에 오는 게 좋다는 순옥 어르신은 특이나 수업이 있는 날은 기다려진다며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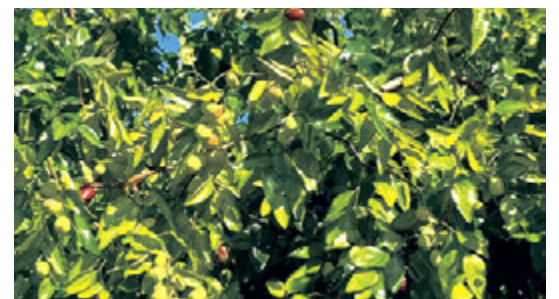
“오늘은 미술선생님이 와서 그림을 그린다는데 빨리 수업을 받고 싶다. 잘 그리진 못해도 따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어르신의 동안 비결은 건강한 식습관과 적당한 운동, 소소한 농사일인데, 그중에서도 항상 즐겁게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객들에게 설명했다.

젊은 시절 자식을 키우기 위해 애썼던 순옥 어르신은 지금도 자식들 생각에 애뜻하다. 집 앞 텃밭에 콩, 갓, 상추 등이 가지런히 자리 잡고 있는 이유도 때때로 찾아오는 자식들 손에 들려주기 위해서다.

“예전에는 밭농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 지금은 텃밭에 작게 나 먹을 만큼만 하니 할만해. 살아 보니까 뭐든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하더라. 집에만 있는 것보다 회관에 나와서 주민들끼리 이야기하고 노는 게 요새 낙이야.”

이따금 누가 마을회관으로 들어오는 물건이 괜찮다 싶으면 회관에 있던 사람끼리 공동으로 구매하는 재미도 있다. 얼마 전에는 다 같이 공주 알밤을 묶음으로 사기도 했다. 순옥 어르신께 밤 맛은 어땠냐고 묻자 “젊은 알밤은 쌓아두고 사람들끼리랑 같이 먹으니 더 맛있다”며 웃었다.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다양한 인지활동을 하며 즐겁게 웃는 유순옥 어르신(왼쪽에서 세번째)과 가을을 알리는 어르신 집앞 대추나무.

마을서 소문 자자한 효부 맘며느리

유귀례 어르신

치매센터에서 뭘 만들면
딸과 손자들 차지

-
휴대폰 배경화면은
봐도봐도 예쁜 증손자



신평마을회관 골목을 들어서 호박 덩굴을 따라 가다 보면 유귀례(86) 어르신 댁이 보인다. 이 집은 신평마을에서 4대가 함께 살았던 곳이다. 현재는 남편 김학만(89) 어르신과 함께 지내고 있다. 귀례 어르신은 “우리 어머니는 105세에 세상을 떠났어. 어머니 살아 계실 때 마을에서 효부상도 내가 받았지. 보다시피 집이 넓어. 가족이 많을 땐 몰랐는데 지금은 둘이 사는데 청소하는 게 힘들 정도야”라며 웃었다.

올해로 64년째 마을에 살고 있는 귀례 어르신은 고산에서 이곳에 22살에 시집을 온 뒤로 정착해 살고 있다.

“마을에서 중매 받아서 결혼 했어. 처음 시집와서는 아무것도 몰라서 아궁이에 불도 못 피웠어 고생을 꽤나 했지. 집에 식구가 많아서 책임감 때문에 가능하더라고. 남편은 밖에서 사회생활 하고 나는 집에서 이것저것 열심히 했어. 남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자식들 키웠지.” 그 시절 생계가 힘들어 자식들 돌 사진 한 장도 없으며 악착같이 버텨온 세월을 회상했다.

그렇게 어르신은 중매로 결혼했고 현재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자식들이 다 결혼해서 증손자까지 있어. 명절이나 생일에 다 함께 모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핸드폰 배경화면도 우리 증손자야. 귀여워서 손자 보는 재미가 쏠쏠해.” 지나온 세월을 보상 받는 듯 가족과 사이가



마을에서 효부로 인정받은 유귀례, 김학만 어르신 부부.

좋은 어르신 댁이다.

“일요일에는 삼례성당을 다니고 회관에서 하는 수업이나 보건소 치매센터도 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 치매센터에서 만든 것들은 딸과 손자들이 예쁘다며 가져가기도 해서 뿌듯해.”

어르신의 하루 일과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텃밭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밭에는 고구마, 감자, 들깨, 마늘, 파, 당근 등 다양한 채소들이 있다. 요새는 날이 선선해져 오전 8시 30분까지 텃밭을 가꾸고 집으로 돌아와 아침을 챙긴다.

“올해는 고구마 크기가 너무 작게 자라서 아쉬워. 그래도 가족이랑 나눠 먹으려고 한 거라 괜찮아. 자식들은 몸 상한다고 쉬라고 하는데 집에 가만히 있기보단 이렇게 먹으려고 조금씩 하고 있네.”

귀례 어르신에게 가족이란 자랑스럽고 신뢰하는 버팀목이자 의지가 되는 존재다. 어르신에게 남은 올해의 바람은 무엇인지 묻자 항상 그랬듯 변함없는 행복과 자식들의 건강을 가장으로 생각한다. “지금처럼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지내면 좋겠어. 남은 인생동안 행복하고 재밌는 일이 가득하면 좋겠네(웃음).”



시어머니 생전에 함께 찍은 가족사진과 유귀례 어르신이 직접 만든 액자.

즐거운 마을로 이끄는 첫 여성 경로당장

하택임 경로당장

주민들이 좋아할
프로그램이다 싶어
책놀이, 미술도 흔쾌히 “오케이”



여느 때처럼 마을 주민들이 회관에 모여 점심을 먹은 날 오후, 경로당장 하택임(77) 씨의 집으로 초대받았다. 이곳 신평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인 그는 충청도 지역으로 시집갔다가 다시 신평마을로 돌아온 지 50년이 넘었다. 어릴 적 기억이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대문과 담이 없어 지나가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들러서 놀다 가거나 음식을 나눠 먹었던 정겨운 풍경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정 많고 웃음 많은 마을을 기억하는 택임 씨는 추천을 받아 올해부터 경로당장을 맡게 되었다. 지금까지 경로당장은 남자만 해왔는데 하택임 씨가 신평마을 첫 여성 경로당장인 것이다.

“경험이 없으니까 이전 경로당장이나 이장님 등 여러 명에게 조언도 얻고, 거의 경로당으로 출퇴근할 정도로 많이 오갔어요. 다른 회원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고 지지해 준 덕분에 경로당을 잘 관리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모두가 즐거운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에 택임 씨는 마을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 정보를 여기저기 찾아다니기도 했다. 좋은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전화가 오면 마다하지 않았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해 7월에 종료된 노인 인지활동 책놀이 프로그램도 그의 적극적인 움직임 덕분에 추진됐다.

“도서관에서 온 전화를 받고 나서 마침 경로당 프로그램이 없어서 다들 적적해하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동화책 읽고 게임을 하는 활동이 재미있어서 할 때마다 경로당 사람들 대부분이 모였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3대가 함께사는 2층 집과 감나무가 드리워진 마당을 배경으로 선 하택임 경로당장, 마당엔 상사화가 한창이다.

최근 신평마을은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후 운영되었던 프로그램의 맥이 끊겼다가 올해부터 다시 점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한다.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강사가 나와 건강을 확인하고, 치매예방 교육과 오락 활동 등을 진행하는 형태다.

“될 수 있으면 즐겁고 유쾌한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받고 싶다”는 하택임 경로당장은 무서운 추진력을 바탕으로 경로당에 또 하나의 재미를 들여왔다. 바로 10월부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의 지원을 받아 일주일에 한 번 미술 수업을 받게 된 것이다.

경로당 살림 꾸리고, 예전 직장동료들과의 모임도 참석하느라 바쁜 택임 씨의 최근 관심사는 ‘정원 가꾸기’이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층집을 개조해 아들 부부, 고등학생 손녀까지 3대가 함께 사는데, 인테리어에 재능 있는 며느리의 주도로 울봄 살내 리모델링을 했다.

“인형의 집처럼 아주 예뻐서 마음에 든다”고 자랑한 택임 씨는 내년 봄에 정원을 더 예쁘게 가꾸려고 한다. 성격상 집에 가만히 못 있어서 매일 바쁘게 돌아다니는 게 재미있다는 그의 바람은 앞으로도 가족들과 건강하게 지금처럼만 사는 것이다. 

에헴, 우리마을이 공을 좀 차지!

최병용 마을 이장

하리교에서 삼례나들목까지 쪽 뻗어있는 도로 한쪽에 '만경마트'가 있다. 신평마을 토박이 최병용(64) 이장이 10년 정도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돌아와 원래 살던 집 바로 옆에서 2002년부터 장사를 시작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0여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간 만경 마트는 여전히 신평마을 초입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마을 이름의 유래와 현황이 궁금하다

신평마을은 하리에서도 가장 나중에 이루어진 마을이라 '신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주변 마을보다 규모는 작아도 만경강과 평야로 둘러싸인 곳이라 고요하고 소담한 정취가 있다. 큰 대로가 나면서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마을이 갈라졌고, 현재 50가구 정도 살고 있다.

만경마트는 마을에서 어떤 장소였나

마을 사람들이 언제든 모여서 쉬거나 놀다 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술도 마시고 놀다 가라고 가게 안쪽 공간에 따로 자리를 만들어 놨다. 근처에 딸기 농사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쉬는 시간마다 우리 마트로 와서 그네들끼리 어울렸다. 언젠가부터는 일손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우스 안에 휴식 공간을 마련하면서 점점 마트를 찾는 사람이 줄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트도 자정까지 장사하지 않고 일찍 닫는 대신 아침 5시 반에 일찍 연다. 새벽에 이 길을 지나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들렀다 간다.

신평마을의 자랑거리는 무엇인지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머릿수가 좀 모였다 싶으면 다 같



마을 초입에 자리해 20여 년째 운영 중인 최병용 이장의 만경마트.

이 막걸리를 마시거나 웃놀이하는 등 어울려 노는 풍토가 좋았다. 마트 뒤편으로 더 들어가면 공터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공차기도 하고 음식을 해서 나눠 먹었다. 그런 옛 추억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돌아가시고 인구가 줄은 요즘에는 자주 모이기 쉽지 않다. 그래도 삼례읍민의 날, 하리 주민의 날 행사 때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지난번 삼례읍민의 날 행사 때 패네티틱 경기에서 여자팀과 남자팀이 나란히 우승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공차기를 제일 잘한다.

8년째 맡아온 이장직의 마지막 해를 앞둔 소감은

마을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이장직을 맡게 된 후 의욕을 가지고 여러 일을 진행했다. 작년까지 체육회장도 겸했는데 마을 관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딸들을 데려가 참석하게 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마을 사람 대부분이 믿고 따라줘서 그동안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다. 고향 마을을 위해 일하며 보람을 느꼈는데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싫증 날 때가 된 것 같다(웃음). 이장직을 내려놓고 나서는 농사와 마트 일,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하고 싶다. ☺



8년째 이장을 맡아 마을을 위해 봉사 중인 최병용, 송연실 이장 부부.

마을 어르신들 추천 동화책

01

빨강부채, 파랑부채



유귀례 코가 길어졌다 다시 짧아졌다 하는 모습을 그린 삽화가 무척 우스꽝스럽고 재미있다.

김대운 욕심을 품고 나쁜 피를 부리는 나무꾼이 마땅한 벌을 받는 결말이 속 시원하다.

02

석수장이 아들



유순옥 석수장이 아들과 친구가 주고 받는 말놀이도 재미있지만, 결국 석수장이 아들이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게 된 장면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03

오시오, 자시오, 가시오



박정숙 어렸을 때 부모님께 들었던 이야기를 어렴풋이 기억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의 추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어서 좋았다.

박정애 익숙한 전래동화라 쉽게 읽을 수도 있고 말놀이, 수수께끼, 스무고개 등과 함께하면 더 재미있다.

제12회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

아빠! 재밌는거! 워비! 맛있는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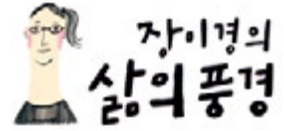
‘제12회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가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진행됐다. ‘WILD-FOOD, WILD-FUN, WILD-LIFE’를 주제로 더욱 다양해진 체험과 건강한 먹거리로 완주군민과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올해 12회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자연과 공존하며 더 와일드하게 즐기는 놀이 체험존과 13개 읍면의 건강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로컬밥상을 비롯해 화덕체험, 대장간체험 등으로 사랑을 받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자원과 사람들이 모여 완주만의 특색을 보여주는 화합의 장이다”며 “올해 축제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내년에 더욱 멋진 행사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제12회 원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를 즐기는 방문객들. 맨손물고기잡기와 화덕체험, 감자삼국 등 전통을 지닌 프로그램부터 올해 처음 선보인 웅치이치 승전 퍼레이드, 이창호 9단과 함께하는 1:8 지도 다면기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눈길을 끌었다.





고산면 덕암마을 이광민 이야기

고산면에서 큰길로 오르는 길목에 덕암마을이 있다. 열두 번의 가을을 맞이하는 동안 술하게 오고 갔던 길가에 자리 잡은 마을이다. 평범한 시골 마을 안에 누군가가 구축한 깊고 단단한 세상을 이제야 발견하다니! 그 누군가는 불상조각가(나운불교조각, 국가무형문화재 108호 이수자, 문화재 목조각 수리 기능자 2149호)이자 클라이머(암벽등반가) 이광민 씨(1967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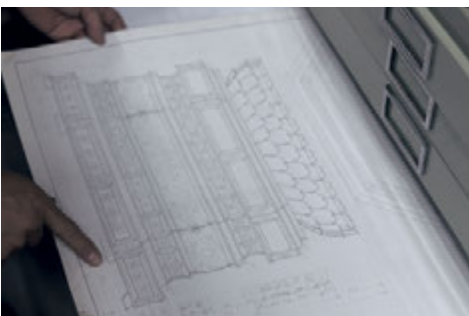
오고 가며 무심히 보았던 나무대문집이 이광민 씨의 작업실이다. ‘나운불교조각’이라는 이름으로 터를 잡은 것이 30년이 되어가는데 나는 왜 이곳의 존재를 몰랐을까.

“내가 속세에 나가 속인들 만날 일이 뭐 있나. 불상 깎으니까 스님들만 상대하지 뭐.”

나무조각을 좋아하던 소년이 불상조각하는 청년이 되기까지

전남 영암에서 태어나 9살에 서울에 가서 살게 된 광민 씨는 유난히 나무조각하는 것을 좋아했다. 손재주가 좋아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해 건축설계를 전공했다. 고3때 대학진학을 위해 투시도 관련 책을 찾으러 서점에 갔는데 우연히 목공예 책을 보고 나무조각하는 일에 꽂혀 직업훈련소를 택했다.

“불상조각은 20살 때부터 했어요. 목공예도 급수가 있어요. 직업훈련소에서 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1등급으로 불상조각하고 그 다음은 가구조각, 그 다음은 시중 물건조각을 하죠. 한창 일 배울 때는 자료가 없어서 전국의 절을 다 돌아다녔지. 자료가 없으니까 오로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돌아다닌 거지. 궁금증 때문에. 휴가만 생기면 버스 타고 서울서 해남까지 내려가서 절 찾아다니면서 필름카메라로 찍고 내 자료 모아놓고, 직접 보면 달라요. 그냥 사진만 보는 거랑 달라요. 만약 그때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상태로 배우기만 했다면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을 거 같아. 스무 살 무렵의 열정이나 절실함 때문에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절실하지 않으면 작은 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칠불사 갈 때는 버스 타고 화개장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_ 불상조각 작업실 벽면에 일본, 유럽, 한국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대패가 전시되어 있다. 암벽 등반을 연습하는 암장에 선 광민 씨. 불상은 연꽃좌대, 석가모니, 뒤에 후광이 한 세트로 옷칠을 여러 번 하고 말리는 과정을 거친다. 스무 살때부터 사용하던 도구. 청년시절 공부하고 모아 놓은 불상 관련 자료들.

터에서 내려 두벅두벅 걸어서 불상 보고 사진 찍고 다시 내려와서 개천 한 번 보고 산딸기 따 먹고 또 다른 절로 걸어가고, 남들 여름휴가 즐기는데 나는 터벅터벅 걸어서 절을 찾아갔지. 나는 그게 좋았으니까.”

서울 살던 광민 씨가 완주에 터를 잡게 된 것은 금산사 화재 때문이다. 1986년 금산사 대적광전에 원인 미상의 불이 나 전소되었고 1990년에 복원되었다. 대적광전 복원을 위해 전국의 불상조각가, 목수들이 모여들었고 이광민 씨는 복원완성 1년 전에 합류해서 금산사에 상주하며 마무리 작업을 함께했다. 그 뒤 29살에 스승으로부터 독립해 작업실을 찾던 와중 완주 덕암마을 지금의 이곳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29살에 독립했을 때 진짜 시간방졌어. 내가 불상조각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스님들이랑도 대판 싸우고 그랬지. 대판 싸웠어도 2년 있다가 전화 오면 또 일하고 그러죠. 어떤 절은 작업비를 터무니없이 적게 주기도 하고, 좋은 스님들은 하필이면 절이 가난해요. 그럼 내가

손해 보더라도 해드리는 거야. 그런데 어떤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다 들고 돌아 돌아온다고. 아닌 게 아니라 돌아오더라고. 나는 이 일 하면서 세상이 참 공평함을 느껴. 어떤 절에서 손해를 보면 꼭 엉뚱한 다른 곳에서 이익이 돌아오더라고. 봄 오면 여름 오고 가을 오는 이치랑 똑같아. 손해 보더라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고 그냥 해. 근데 돌아오는 주기가 10년이야. (웃음) 너무 오래 걸려 인내를 많이 해야 해.”

불상조각작업실 옆 레전드클라이밍집

이광민 씨가 유일하게 속세에 나가 속인들을 만나 즐기는 취미는 암벽등반이다. 산악부대에 입대해 지긋지긋하게 산속을 뛰어다니면서 죽어도 산은 오르지 않으리 다짐했지만 불상조각하다가 쉬고 싶을 때는 저절로 산으로 향했다. 전국의 산들을 오르다가 바위를 넘고 싶어 등반을 시작하게 되었다. 등반인생 30년이 되어간다. 불상조각 작업실 옆의 공간이 무엇인가 했더니 암벽등반 연습하는 암장이었다. 청소년 클라이

밍 국가대표 선수들도 종종 방문해 연습하고 이광민 씨가 지도하기도 한다.

간판은 없지만 구글지도에 ‘레전드클라이밍집’을 검색해 보시라.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기울어진 벽면에 알록달록 빼곡하게 박혀있는 홀드(벽을 오를 때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와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압도되고 만다.

“짧은 시간 동안 밑에서 정상까지 순식간에 올라가잖아. 그 쾌감이 굉장해요. 그걸 딱 끝냈을 때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좋아요. 내가 하는 일은 몇십 년을 해야 입에 풀칠하고 실력도 천천히 느는 데 등반은 내 힘으로 잠깐 올라가면 금세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내 삶의 돌파구야. 잠깐 오르면서 즐거움, 해방감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광민 씨는 아직도 불상의 입 부분 표현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다. 어린 시절 처음 불상조각을 시작할 때는 부처님 머리카락 돌려 깎는 일을 수없이 했다. 스승이 인정하면 이제 다음 단계를 조각하는 것이다. 불상의 뒤쪽 옷 주름을 잘 깎으면 앞쪽 옷 주름을 깎는다. 그러다가 가슴 부분을 깎고 손을 깎고 눈과 코를 깎다 보면 입에 다다른 것이다. 미묘한 미소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통일신라시대 때 불상은 볼륨이나 윤곽이 또렷해서 깎기에는 훨씬 쉽죠. 그런데 밋밋하고 단순할수록 흉내 내기 어려워요. 입 부분을 잘 못 깎으면 새침테기 부처님이 돼요. 아흔이 넘은 우리 사부님은 지금도 힘들어하세요. 입 부분 조각할 때 이 부분은 평생 조각해도 힘든 부분이에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29살에 독립했지만, 그때부터 조각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스무 살에 조각을 시작해서 20년 차가 되니까 비로소 걸음마를 하는 것 같고 30년 차가 되니까 조금 알겠고 내년이면 40년이 되어가는데 이제야 힘 빼고 일할 맛이 난다고 한다.

좋은 은행나무를 골라 곁목을 쳐가며 세심하게 조각을 하면 속을 파내야 곁이 갈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6개월 가량을 말려서 세모시로 배접을 하고 그 위에 옷칠을 하고 말리는 과정을 열 번을 거친 뒤 금박을 붙이는 것이다. 잘 만들어진 불상의 기준은 무엇이나 물었다.

“봐서 좋으면 좋은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순수하게 봤을 때 좋으면 좋은 거야.”

글·사진=장미경 장미경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고산미소시장에서 공동체가 만든 제품을 파는 편집매장 흥흥을 운영한다.

완주의 문화예술인들

02

한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저에는 문화예술이 있다.
 문화와 예술이 없는 삶은 삭막할 것이다.
 여기 마음의 허기를 채워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 지역 문화예술인을 소개한다.



소양 작업실에서 물레를 이용해 도자기를 빚고 있는 김명호 작가.

유화·도자작가 **김명호** 씨

도자기를 캔버스 삼아 자연과 생명, 인간의 순환·공존을 담다

법학 전공자로 논리가 강하고 권위적 성향을 지녔던 그의 부친은 일찌감치 셋째 아들인 그를 육사에 진학시키려는 마음에 ‘맹호부대’를 본 따 이름을 ‘맹호’라 지으셨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감히 카리스마 강한 부친의 뜻을 거슬러 다른 진로를 꿈꿀 엄두를 내지 못했다.

“고교 입학 당시까지는 언제나 육사에 진학하라는 아버지의 희망을 의식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연히 친구가 다니는 화실에 합류하게 되면서 화가로서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고2 때 이과에서 문과로 전과를 감행했지요. 제가 고교 졸업할 때 전북대학교 사범대학에 미술교육과가 처음 생겼어요.”

김명호 작가는 교사와 화가를 꿈꾸며 전북사대 미술교육과 1회 입학생이 되었다. 그의 대학시절, 그리고 사명감과 열정 넘치는 첫 교직 생활로 이어지는 80년대는 민주화를 향한 사회적 열망이 분출하고 미술계에서는 민중미술이 태동하던 시기였다.

“민중미술을 접하면서 미술적 아름다움의 기준을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는 내적 자각이 일어났어요. 아름다움에 대한 내 생각

이 너무나 철부지 같은 생각이었구나, 내면의 본질적 아름다움이 아닌 피상적인 아름다움만을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민중의 아픔이나 시대성을 결여한 채, 대상의 겉모습이나 색상만 아름답게 묘사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이러한 자각과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는 전북지역 현실참여 미술동인 ‘들, 바람, 사람들’에 참여했고, 꼬박 3년 학사장교로 복무를 마치고 학교 현장으로 복직한 후에는 전북민족미술인협회(전북민미협) 창립 멤버로 활동을 이어 나간다. 끊임없이 미술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면서 정립해 나간 역사관, 세계관 및 예술관은 꾸준히 확장 심화한다.

서양화 전공자로서 유화로 출발한 그의 예술세계는 지금 도자 예술에 닿아있다. 37년간 중등 미술교사로 재직하며 작품활동을 지속해 온 김 작가는 2023년 2월 명예퇴직 후 직접 빚은 도자기에 야생초들의 생명력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리며 2막을 열어나가고 있다. 도자기라는 이 새로운 캔버스에 그동안 추구해온 예술세계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 그의 현재 숙제다. **공**

유화에서 도자기로 넘어왔습니다

2001년 장수에 있던 도예가에게 물레를 처음 배웠습니다. 2002년 소양에 작업실을 겸한 집을 지어 살기 시작했는데, 시골에 터를 잡으니 자연스레 정원과 텃밭을 가꾸고 일구며 흙을 만지고 땀 흘리는 노동에 익숙해지면서 도예의 세계에 마음이 가더군요. 틈틈이 공부를 지속했습니다. 서양화 전공자로서 유화물감을 쓸 때마다 물감 성분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유화물감 냄새가 좋았는데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흙냄새에 익숙해져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유화물감을 다룰 때 머리가 어지럽더군요. 2014년 중국여행을 계기로 도자기에 그려진 섬세한 표현들에 매료된 후, 작업의 방향이 직접 성형한 도자기 위에 캔버스 삼아 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3년 정도 열심히 준비해서 2017년 도자기 작품들로 첫 개인전 '백자 야생초 그림전'을 열었습니다. 시골생활 속에서 항상 흙, 벌레와 곤충들, 풀과 꽃들, 그리고 나무들을 다루며 사는 제 입장에서는, 생태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예술 방식 중 하나가 도자예술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 거지요. 도자기 빚는 작업을 하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는 내 모습을 보며 저와 잘 어울리는 매체라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자기의 하나로 칭송되는 달항아리의 제작을 집중 공부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과정이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공부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지만 주변 지인 도예가들과 유튜버들의 도움을 받아 독학하는 힘든 과정이 이어졌지요. 최근에는 달항아리 기법을 응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빚은 후 청화, 철화, 그리고 고화도 채색 안료 등으로 풀과 벌레 등이 어우러지는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연과 생명의 순환,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공감과 소통을 이야기하고 싶지요. 저는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들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고자 애쓰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여 년 넘게 시골 생활을 하며 그동안 제가 관찰한 땅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바로 해마다 땅속 깊이 뿌리 내려 추위를 이겨내고 싹을 틔워 꽃을 피우고 씨를 맺고 떨어져 다시 살아나 주변 생명체들과 함께 살아가는 잡초들, 즉 야생초들의 모습이지요. 저는 이 모습들을, 온갖 어려움에 시달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람다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서로 연대하고 다독이는 보통사람들과 연결하여 직접 빚은 도자기에 표현합니다. 작품을 통해 자연과 인간, 생명의 순환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요. 젊은 시절에는 동학이나 민중처럼 거대한 담론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시골살이를 하고 흙과 풀을 접하면서는 생태 순환적이고 미시적인 세계에 빠져들었죠. 근본적인 마음이 변한 건 아닙니다. 전에 소나무나 강에서 민중을 보았다면 지금은 질경이나 엉겅퀴, 나비같이 주변의 일상적인 존재에서 역동성과 주체성을 지닌 보통사람들을 떠올리니까요.

작품을 더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술 문명은 근대 이후 제어할 수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문명의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80, 90년대의 민중미술이 독재나 인간을 억압하고 억누르는 시대에 저항하는 미술이었다면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 또는 문제의식인 '인간과 자연의 상생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작품에 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다양한 도자 작품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제 작품이 달리 보이지 않을까요?

고민이 있다면

작가로서 작품판매에 신경이 안 쓰일 수 없습니다. 도자기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실용적이고 장식적 기능을 두루 가진 예술입니다. 생활자기를 함께 제작하면 작품제작 비용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작품세계가 확실히 정립되기까지는 생활자기 제작과는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기존의 도자 작품과 차별되는 저만의 고유성이 있어야 미술계에서 작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김명호 작가가 최근 작업 중인 달항아리 기법을 응용한 작품.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전통적인 방식을 연마하면서도 이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소화해야 인간과 자연의 상생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를 꾸준히 고민하고 실험하려고 합니다. 도자기 작품 하나하나에 사라져가는 생명체를 그려 놓고 이를 입체적으로 자연에 설치하는 작업도 해보고 싶어요.

특별히 마음이 가는 작품이 있습니까

오래전 일이지만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됐던 '봉기'라는 작품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폭정에 견디다 못한 민중들이 보리밭을 가로질러 조병갑을 잡으려고 성난 파도처럼 일어나는 장면을 구상해서 그린 작품이었어요. 동학농민운동은 도자 작품의 주제로 표현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적 성취를 높이기 위한 작가만의 방법이 있다면

직접 일구는 발이나 뜰에서 노동하며 자연과 생명에 대한 성찰과 묵상을 합니다. 저는 저만의 독창적 세계관, 기법, 삶과 예술의 일치 중시합니다. 도자 제작의 숙련된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도자와 장자, 양자역학 등도 관심을 가지고 지구 위기에 대한 대안철학에 대해서도 공부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도자기에 회화성을 보다 완숙한 단계로 표현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다양한 설치 작업도 작품제작에 응용해보고 싶어요.

예술가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80년대와 90년대의 민중미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것은 우리 땅에서 자생적으로 탄생한 미술사조라는 것과 불의의 시대에 저항하는 강렬한 예술가 정신 때문입니다. 21세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시대정신은 인간과 자연의 지속 가능한 상생입니다. 이를 작품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제 작품의 핵심 주제입니다. 고온의 불속에서 살아남는 도자의 제작방법을 택한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

그동안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역할들과 병행하느라 시간에 쫓기면서 했던 작품들은 볼 때마다 어딘가 부족하고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한 작가의 작품 세계가 무르익어 가려면 작품에 매진하는 것과 작가로서의 프로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니 앞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은 열심히 작품에 매진해보려고 합니다.

전북에어크린존 사회적협동조합

무더위 쉼터 냉방기 먼지-곰팡이 청소 봉사

9월 26일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갈 무렵 에어컨 세척서비스 등 청소업체인 전북에어크린존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에어크린)이 냉방기 점검 무료 봉사에 나섰다. 이는 소양면 무더위 쉼터 5곳을 방문해 여름철 사용했던 냉방기를 분해 청소하는 것이다. 현장 관리에 나선 소양면 관계자는 “이번 무료 봉사활동이 주민 분들은 위해 도움을 줘서 큰 보탬이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현장 관리에 나선 소양면 관계자는 “이번 무료 봉사활동이 주민 분들은 위해 도움을 줘서 큰 보탬이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에어크린은 지난해 냉방기 점검 지원 사업체로 선정됐을 때 군 전역 쉼터로 지정된 289개소의 냉방기를 점검한 적 있다. 현장 총괄을 맡은 이주협(31) 실장은 주로 에어컨 작동 여부 확인과 실외기 냉매 가스 보충 등을 진행하며 냉방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작년 점검을 하면서 냉방기 청소에 대한 것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래서 올해는 마을 쉼터를 찾아 청소를 하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청소 봉사활동을 위해 소양면 대흥마을회관에 에어크린 직원 4명이 함께했다. 분해 팀과 세척 팀이 냉방기 세척 전 에어컨 주변으로 물과 오염물이 튀지 않게 보양하고, 약품과 고압세척기를 사용해 내 외부에 쌓인 먼지와 곰팡이를 제거했다.

여름철 자주 사용하는 냉방기는 꾸준한 관리가 필수다. 먼지뿐만 아니라 내부에 물이 고이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면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주협 실장은 “소양면 무더위 쉼터 5곳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냉방기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느꼈다”며 “노령화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취약계층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고 밝혔다.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다리안길 7-7
☎ 010-2856-9408



대흥마을 문화경로당 앞에서 에어크린 직원들과 설재록 경로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홀로 사는 어르신 덕의 도배·장판 시공을 마친 봉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_ 손웅 광역사무장, 김명신 수석사무장, 윤민혁 광역사무장, 박종배 이사장, 이은주 광역사무장, 국민숙 봉동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용진 두억마을 마을기술사업단 봉사활동 현장

“환해진 집 보면 덩달아 행복”

9월 24일 오후. 한결 시원해진 기온에도 여전히 쨍쨍한 햇볕 아래 구슬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마을기술사업단을 운영하는 완주마을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박종배 이사장과 전문기술 인력, 완주 광역사무장들이다. 특히 4명의 광역사무장은 일손이 필요하다는 말에 각자 업무를 중단하고 한달음에 이곳 봉동읍 봉림마을까지 달려왔다. 이들은 마을기술사업단 수혜 가구로 선정된 홀로 사는 어르신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도배 및 장판을 시공하는 중이었다.

마을기술사업단은 ‘2024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에 용진읍 두억마을이 선정되면서 시작했다. 두억마을이 완주군 내 각 읍면의 맞춤형복지 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소외 계층에 대한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두억마을은 귀촌한 기술 전문가들이 지역주민과 서로 도우며 살 수 있게 하는 사회적 봉사 사업 ‘맥가이버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으로 인해 평소에도 마을 내에서 재능기부 팀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두억마을에는 미장, 용접, 철물, 전기 전문기술을 보유한 주민들로 구성된 4개 팀이 있다. 현장에서 지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달라서 가진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던 기존 계획을 실현하기 어려워지기도 했다. 이러한 예상 밖 상황의 돌파구는 주변인들의 많은 도움이었다.

박종배 이사장은 “봉동 봉림마을 수혜 가구를 지원할 때 외부 전문가를 빨리 구해야 했는데, 봉동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국민숙 위원장이 부족한 전문 인력을 여기저기 물어다 구해줬다. 군산에서 여기까지 온 분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수혜 가구가 있는 마을에서 기타 인력을 지원받지 못해 부족한 일손을 메꿔준 완주군 광역사무장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마을기술사업단 지원을 담당하는 윤민혁 광역사무장은 “도배 및 장판 작업을 진행하기 전후로 짐과 가전제품을 옮기는 게 힘들었지만, 작업이 모두 끝나고 깨끗하고 환해진 집을 보며 좋아하는 어르신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고 웃었다.

10월 10일을 기준으로 마을기술사업단은 고산면 안남마을, 봉동읍 봉림마을, 상관면 신흥마을의 수혜 가구들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추가로 용진읍의 수혜 가구를 발굴하여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종배 이사장은 “용진읍 2개 수혜 가구에는 원래 계획대로 창틀 수리 및 교체, 방충망 교체, 전기 누전 방지 공사 등 주거생활의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는 다양한 재능기부 봉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마을과 공동체가 가진 자원으로 농촌의 복지 사각지대를 좁히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

질문이 있는 이달의 그림책

키워드 - 다른 시각으로 상상해보면

유타 바우어 | 엄혜숙 옮김 | 키워북스

가끔, 읽었으되 읽었다고 말하기에는 어쩐지 자신 없는, 방법을 모르는 수학문제를 만난 것 같은 책이 있다. 여백 많고, 단조로운 구성에, 간결한 문장까지 '읽었으면 그렇게 있지 말고 무슨 말이든지 좀 해 봐'라고 압박하는 책. 『셀마』가 그 중 한 권이다.(전적으로 개인적 소견임을 밝힙니다)

셀마 -행복이란-



셀마는 자고 먹고 사랑하고, 자고 먹고 사랑하고, 자고 먹고 사랑하고, 폭 잔다. 동물의 삶이 '다 그런 거 아니냐'며 반문할 수 있다. 텍스트를 살펴보면 자고 먹고 사랑하는 것이 전부인 듯 보인다. 셀마와 같은 단순한 일상에 행복이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행복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통해 읽는 이가 행복과 일상에 대해 성찰하기를 요구한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자고, 먹고, 사랑하는 것은 공통된 생존조건이다. 차이는 대부분의 인간이 할 수만 있다면 필요 이상을 취하려 한다. 그러니 과하게 자고 먹는 것에 몰두하여 거주지인 지구를 오염하지 말 것이며, 사랑하되 자신과 다른 존재를 위해 사랑할 것, 행복이라 할지라도 최소한만을 영위할 것,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여겨 소홀하거나 미루어두면 재난과도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전달하고 있다.

여기에 하나 더, 셀마의 반복되는 일상을 다른 시각으로 상상해 보자. 지루하고 단순해 보이는 일상을 긴장 상태로 말이다. 예를 들어, 앞뒤 면지 그림에서 양들은 얼핏 춤추듯 공중 부양하고 있으며 겁먹은 것처럼 여우는 납작 엎드려 있지만, 사실 양들이 발을 땅에 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산양이 여우와 대화하는 그림을 보면 둘 사이 거리가 멀찍하다. 서로 불편해 보이는 상태로 대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우는 '그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 생각도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문제란 어떤 것이며, 아무 생각도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셀마가 풀을 '조금' 먹는 이유는? 폭 자는 것처럼 보이는 셀마의 마지막 모습이 전과 달라 보이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질문하는 여우는 배가 어지간히 포동포동한 상태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아 한 잔 하고 있던 상황이다. 여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자 유타 바우어는 독일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부모는 전쟁 난민으로 세계대전 당시 독일로 이주하였다. 만약, 이 상황을 셀마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어떨까. 무심히 지나친 텍스트, 그림 하나하나가 새롭게 읽힌다. 더불어 작가의 다른 책들도 다른 시각으로 보이게 된다.

감나무책방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남봉로 134 ☎ 063-262-3111

* 주제를 비롯한 모든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말하기임을 밝힙니다. | 신작 중심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매일
설
래

#64 항상 현재에 사는 법



설래는 완주에 온지 11년차 청년이다. 그림그리고 디자인한다.

촌티작렬 시골잡지

완두콩 구독문의

☎ 291-8448

가을 소풍 같은 맥주축제

THE 1ST BEER FESTIVAL

치맥하삼:레

완주군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올 가을 처음 열린 2024 삼례 맥주축제 '치맥하삼:레'가 대성황을 이뤘다. 12일 삼례문화예술촌 일원에서 개최된 '치맥하삼:레'에는 5,000여 명의 지역민과 관광객이 찾아 산뜻한 완주의 가을을 치맥(치킨+맥주)과 함께 만끽했다.

우석대학교와 완주문화재단, 완주DMO가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이 마련한 '치맥하삼:레'는 '치킨과 맥주, 완주군 삼례읍'의 합성어다. 이번 행사는 강순화 우석대 스마트관광학과 교수가 2024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자율과제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고, 각 기관의 협업을 통해 행사 개최의 결실을 맺었다.

축제는 오후 1시와 5시 2회에 걸쳐 삼례파출소 부터 삼례문화예술촌까지 삼례의 일제 강점기 양곡 수탈의 공간을 재해석한 근대역사 퍼레이드 시작으로 다양한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개막행사와 축하공연, 라이브 콘서트, EDM 공연으로 축제장 방문객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맹(40) 씨는 "일제 수탈의 상징적 장소인 삼례를 주제로 옛 상인의 모습을 재현한 삼례농악단의 퍼레이드가 인상 깊다"며 "지역 축제를 통한 역사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체류형 관광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준비한 이번 행사는 완주군의 야간관광 도시 조성 기회와 기반 시설이 결합되어 관광객 유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 관광 활성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관계자들은 함께 의견을 모아 행사를 준비했다. 축제에 참여한 소상공인은 "처음 야간축제에 참여했는데 이미 낮에 완판 되어 다시 음식을 준비해 판매했다"며 "삼례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축제는 지속되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전주에서 온 전현우(25) 씨는 "가을 축제가 한창인데 전주에서 가까운 완주에 새로운 맥주 축제가 생겼다고 해서 방문했다. 시원한 날씨와 어울리는 음식은 물론 가을의 낭만을 더해주는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며 "타 지역 맥주축제와 다른 야간 분위기에 심취해 빠져 들었다"고 웃었다.

유희태 완주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번 축제는 지역의 모든 주체가 협력하여 만들어낸 결과물로, 완주를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산학관 협력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맛있는 삼례의 밤을 즐기세요~



완주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완주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2023년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어 '2023년 우수 지역관광추진조직 시상 및 성과 워크숍'에서 우수 DMO로 선정돼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을 받았다.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은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 기획 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협력 체계를 통해 관광 현안을 해결하는 조직 체계이다. 이에 완주문화재단은 문화, 교육 분야 등의 공동체와 협동조합이 지역 관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완주군관광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완주군 전역이 매력 있는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완주형 워케이션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합한 여행성지 개발 △청년 기획자와 마을이 만나는 '여행으로 재생' △완주관광플랫폼 공간조성 △생태·반려견 여행 등 다양한 테마의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치맥하삼:레 축제 참가자들이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삼례농악단의 거리퍼레이드와 축하 공연, LED희망배 띄우기 등 방문객들이 저녁까지 축제를 만끽하고 있다.



완주군 어린이 취타대 창단

올 9개월 준비 끝 활동 시작

완주군 어린이 취타대가 9월 28일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창단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월 부터 준비작업에 돌입한 어린이 취타대 단원들은 전통 취타음악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자신만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자신감과 자기표현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들은 창단식에서 아리랑과 풍년가를 연주하며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어린이 취타대는 완주문화재단,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의 주최와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삼례초등학교의 주관으로 활동하며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과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의 후원을 받았다.

한편 어린이 취타대는 완주군 지역축제와 문화제, 대규모 이벤트 등 공익적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완주군 어린이 취타대가 지난 9월 28일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양생원과 일 년 열두 달



#윤대라 #artistDERA #올랄라선녀마마

윤대라는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공부하고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었어요. 고양이 양생원, 멧뭉이 겹재, 꼬꼬닭 함께 좌충우돌 우당탕탕 완주살이 11년 차.

<https://www.instagram.com/artist.dera/>



제대로 함께하기 위한

이종민의 다스림의 음악

(10) 한돌의 [홀로아리랑]



QR을 스캔해보세요.
음악이 재생됩니다.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네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
리는 하나가 될까// 백두산 두만강에서 배 타고 떠나라/ 한라산 제주에서 배
타고 간다/ 가다가 홀로 섬에 닿을 내리고/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이해보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거리에서 널리 울려 퍼졌던 통일의 노래입니다. 상실과 애절한 그리움의 노래가 변혁을 염원하는 합성과 뒤섞였습니다.

“나는 촛불이 어둠을 밝히는 세상보다 어둠이 촛불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세상이 아닌, 빛과 어둠이 함께하는 그런 세상에서 말이다.”

이 곡을 만든 사람은 촛불광장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이런 소망을 키워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소곳이 속삭이는 듯한 차분한 노래들을 만들어왔습니다. 통일을 바라지만 강요의 외침은 싫어합니다. 민주주의를 꿈꾸지만 구호나 선언이 아니라 소박한 전통 선율에 얽은 읊조림을 선호했습니다. 한글을 많이 사랑하여 이름까지 ‘작은 돌의 역할’을 뜻하는 ‘한돌’로 바꿨습니다.

원래 서유석이 불렀던 이 노래는 조용필이 2005년 평양공연에서 북측의 요청에 따라 앙코르 곡으로 불러 성황리에 콘서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의 ‘독도 편’과 ‘백두산 편’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면서

인지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소리입니다. 어려웠던 시절 우리는 우리의 한을 아리랑으로 달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만든 홀로 아리랑에선 그 한을 뛰어넘어 희망으로 가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외롭다는 느낌을 주려고 홀로라는 말을 쓴 게 아닙니다. 독도가 홀로, 혼자서 노래를 부르면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로 붙인 거죠.”(한돌)

작곡가 한돌은 1976년 언더그라운드 라이브 클럽에서 음악활동을 시작했다가 1979년에 정식 가수로 데뷔합니다. 1984년 4월에는 기획사 뮤직디자인을 설립해 신형원의 독집을 발매합니다. 이때부터 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데 신형원이 부른 [불씨]와 [유리벽]은 각 라디오 프로그램의 신청곡 1위로 등극할 만큼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1987년에는 [개똥벌레]와 [터], 1989년에는 서유석 노래로 [홀로아리랑]을 발표하면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홀로 아리랑]은 한돌의 대표곡이자 통일을 상징하는 노래입니다. 그는 진즉부터 한민족의 혼인

아리랑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실향민 아버지의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1·4 후퇴 때 두 명의 형과 누나를 함경남도 영흥에 두고 월남한 그의 아버지가 남쪽에서 얻은 다섯 형제 중 둘째입니다.

늘 북에 두고 온 자식들에게 미안함이 컸던 아버지는 그에게 “통일이 되면 북에 두고 온 형을 만나서, 잠시 헤어진다고 생각했지 버린 것이 아니라고 전해 달라”는 한 맺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 애절한 염원과 그리움이 이 노래의 뿌리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홀로입니다. 홀로일 때 어떤 모습과 행동을 취하는가가 사람됨의 궁극적 척도입니다. 홀로 잘 설 수 있어야 함께 잘 화합할 수 있습니다. 홀로 서있는 독도의 정체성이 바로 서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지 못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요즘 이 노래 자주 되뇌며 스스로를 다잡아 볼 일입니다.



이종민은 40여 년간 지켜온 대학 강단에서 물러나 고향 원주에서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산면지사협 ‘사랑의 밥차’ 운영

지난 9월 26일 화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화산면의 취약계층 100명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 이번 행사는 일교차가 커진 환절기에 건강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및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에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여 면역력을 향상하고자 기획됐다. 화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랑의 밥차 봉사단 외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완주군자원봉사센터, 전북사회복지 공

동복지모금회 등 모두 5개 기관이 참여했다.

화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어르신들을 직접 식사 장소로 모셔 와 11시 반부터 사랑의 밥차 봉사단원들이 준비한 점심 식사를 시작했다. 식사하는 내내 어르신들과 봉사단원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건강을 챙기는 등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화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황호년 공동위원장은 “급격



히 떨어진 기온에 약한 어르신들이 가을을 든든하게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다.

음주(飲酒)의 조건, 하하호호히히



[34]

유송이는 전통주를 빚고 즐기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가양주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수집하고 있다.



완주 삼산도가 _호호히_(9% 탁주)
이미지출처_인스타그램@samsandoga

완주군 동상면에 위치한 젊은 양조장 <삼산도가>에서는 세 남자가 술을 빚는다. 3인의 청년들이 술이라는 인연으로 의기투합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고산'을 '고산(12% 탁주, 13% 약주)'이라는 술로 구현해냈다. 굽이굽이 둘러싸인 산줄기에서 골골이 모여지는 만경강 최상류 물길로 농사지은 유기농 쌀로 빚어지는 술의 이력이 술병의 그림에 잘 표현되어 있다. 대중의 평균적인 입맛에 맞춘 단맛 지향적인 대한민국 전통주 시장의 흐름 속에서 삼산도가의 '고산'은 과감하게 단맛을 절제시키고 담백한 드라이함이 강조된 이색적인 술이다. 사과나 포도의 맛이 기보다는 텃밭에서 톡 따낸 오이나 가지의 한입 베어먹을 때의 맛이다. 삼산도가의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자극적인 양념과 달고 기름진 음식에 빠져드는 우리에게 재료 본연의 맛을 느껴보길 권하는 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고산'보다 도수를 낮추고 찹쌀을 좀 더 가미

했다는 탁주 '호호히(9%)'의 술병에는 재미난 그림이 있다. 술병에서 하하호호히히 웃음소리가 들린다.

'음식(飮食)'이라는 명사는 '마실 음(飲)'과 '먹을 식(食)' 두 글자가 합쳐져 있다. 삶이란 끊임없이 '먹고 마실 것'을 구하여야 하는 엄중한 명제 위에 던져지는 것이다. 음식은 모자라도 안되지만 넘쳐나도 안되는 절제를 요구한다. 아름다운 향과 맛으로 흥미해지는 취기를 불러오는 술이야말로 경계를 넘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바로 숙취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울렁거리려 뜨끈한 해장국을 앞에 놓고도 당최 넘기기 어려운 숙취에 시달리는 당신은 어제 무슨 일로 술을 마셨을지 궁금하다. 기쁘고 즐거움이 지나쳤거나, 화나고 슬픔이 지나쳐 적당히 마시자는 평정심은 내뺏겨버리는, 일 년에 한두 번이나 있을(그러길 바랍니다) 그런 날이었지 않을까 싶다. 소

설 『홍길동전』의 저자이자 조선 중기 정치가였던 허균 선생이 정리한 음주의 조건에 해당하는 이유였다면 우선 안심하겠다.

술을 마시는 데는 5가지 좋은 때가 있다. 시원한 달이 뜨고, 좋은 바람이 불고, 유쾌한 비가 오고, 시기에 맞는 눈이 내리는 때가 첫 번째로 맞는 일이며, 꽃이 피고 술이 익을 때가 둘째로 맞는 일이다. 우연한 계제에 술을 마시고 싶은 것이 세 번째 맞는 일이며, 조금 마셔도 흥 난다면 네 번째요, 처음에는 울적하다가 다음에는 화창하여 담론이 활발해지는 것이 다섯 번째 맞는 일이다.

-『한정록』, 허균(1569~1618)-

달이 어여쁘다고, 가을바람이 소슬하다고, 살가운 비가 내린다고, 눈이 포근하게 내린다고, 고운 꽃이 피었다고, 좋은 술이 익었다고, 우연히 반가운 친구를 만났다고, 싱거운 농담을 잘 하는 이웃이 찾아 왔다고...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들에겐 일 년 삼백육십오일에 삼백 날에 해당하는 이유들이다. 이유 없는 날이 어디 있겠는가. 술이란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잠깐잠깐 빛나는 순간에 함께 하는 벗과 같은 존재이니 하하호호히히 웃을 수 있는 좋은 날만 가려 마시라는 허균 선생의 멋스러운 가르침에 감탄할 뿐이다. 굳이 술이 아니어도 좋다. 술을 좋아하지 않거나, 마시지 못하는 당신이라면 그윽한 커피 한 잔, 차 한 잔으로도 족하다.

마을소식

고산 최창용 어르신, 전국 IT경진대회 동상 수상

2024국민행복 IT경진대회 전북대표

지난 9월 10일(화) 서울 용산에 위치한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치러진, 과학기술보통신부에서 주최한 2024 국민행복 IT 경진대회에서 고산자치센터의 컴퓨터 교실 (고산IT플라자)의 최창용 (81세) 씨가 전북을 대표해 고령자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하였다.

지난 7월에 치러진 전북특별자치도 IT경진대회 예선대회의 경쟁에서, 3명(완주군, 군산시, 정읍시에서 각

1명씩)이 중앙의 본선에 진출하였으나, 완주군에서 처음으로 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번 경진대회 본선에서는 전국에서 257명(고령자: 72명, 장년층: 36명, 다문화가족: 16명, 장애인: 133명)이 각 부문 별로 경선을 벌여, 완주군 고산자치센터의 컴퓨터교실(강사: 조계양)이 고령자 부문에서 영예의 동상을 수상하여, 중앙에서 우리 완주군을 자랑하고 온 것이다.

한편 수상자 최창용 씨는 수상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특히 고산면(면장: 유지숙)과 고산면자치회



(회장: 박병주, 사무국장: 조은숙)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예산 및 행정 지원은 물론, 매주 월, 수, 금의 강의를 매회 2시간 중 1시간씩을 무상으로 강의를 해준 강사(조계양)님의 열정과 희생에 따른 결과물"에 고마울 따름이라며,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준 관계자들을 향해 매우 감사하다는 소감을 피력하였다.

이병욱(고산면 성재리)

계절을 즐기는 방식

농/촌/별/곡



차 남 호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가 결국은 물러가고 그 자리에 가을이 들어섰다.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을 쉽사리 떠올릴 수 없다.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 특히 올여름을 강타한 극한 폭염이 남긴 생채기가 너무 깊은 탓이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자연의 섭리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까닭이다. 선선한 기운을 느끼기도 전에 차가운 바람이 살갗에 닿기 때문이다. 가을을 맞는 마음은 폭염 속에서 추석 명절을 보낸 만큼이나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그래도 가을은 가을이다. 사람들은 지난 폭염에 양갓춤이라도 하듯이 가을 속으로 몰려든다. 방방곡곡에 온갖 잔치판이 끝없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이곳 완주에서도 얼마 전 '대표축제'라고 할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가 벌어졌다. 벌써 12번째, 이름부터가 노골적으로 먹고 마시는 잔치

판이다. 올해는 특히나 공연에 유명 연예인이 나와선지 참여인파가 늘었다는 후문이다. 사실 먹자판 놀자판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것 자체가 부질 없는 노릇이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되, 뜻있는 무언가를 찾는 판을 만들기도 한다. 와푸축제가 끝난 즈음에 고산권벼농사두레가 마련한 <황금들녘 풍년기원 잔치>를 꼽을 수 있겠다. '가을풍경'을 주제로 한 사생대회와 '명랑운동회'로 소박하게 꾸몄지만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자연과 어울리고 생태친화적인 자리였다. 회원들 스스로 소박한 먹거리를 마련하고, 너도나도 앞다퉈 상품으로 나눠줄 물품을 협찬하니 넉넉한 잔치가 되었다. 풍년잔치는 벼두레 회원뿐 아니라 모두에게 열어 놓아 동네주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한편에서는 먹고 노는 것을 넘어 나름의 가치를 찾아보는 자리도 있었다. <2024 완주스리운 환경 캠프-뫼도 있는 완주>가 그것이다. 완주미래행복센터가 주최하고, 완주스리운환경교육모임이 주관한 1박2일 행사다. 이름만으로는 뭘 하지는 건지 알 듯 모를 듯한데 주최측의 설명은 이렇다. "길고 뜨거운 여름 잘 지내셨나요? 지구적 변화에 쫓기지 않고, 함께 공감하고,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떤 움직임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생태 감성은 올리고! 지구 온도는 내리고!" 이 정도면 캠프의 성격이 좀 더 눈에 들어온다. 여

기에도 핸드폰-전기 최소 사용, 육고기 배제(비건), 일회용품 금지, 쓰레기 만들지 않는 행사라는 참가 수칙을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가족 단위 참가자를 비롯해 모두 스무 명 남짓 모였고, 멀리 서울에서 참가한 이들도 있었다.

캠프를 준비하고 진행한 완주스리운환경교육모임 자체가 행사 준비를 위해 모인 개인들이고, 참가자 또한 초면인 경우가 많아 먼저 안면 트는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가치에 공감하는 이들이라 금세 친해졌다. 주최 측이 준비한 음식재료를 나누는 방식부터 생태문제 풀이(환경골든벨)를 거쳐 이루어졌다. 이어진 '들풀탐색'은 주변에 널린 풀(잡초)의 생리와 효능을 새롭게 눈을 뜬 시간이었다.

저녁밥은 전기제품을 쓰지 않고 비건식을 느리게 조리하도록 했는데 '시장이 반찬'이라 맛있을 수밖에. 캠프파이어는 미리 나눠준 질문지를 읽은 이가 답변자를 지목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주제는 자연 또는 생태로 선정함으로써 관련 의제를 더 넓고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날은 요가로 몸을 풀고, 행사장 화단을 꾸미는 '한 평 정원 만들기'를 끝으로 캠프는 마무리되었다.

기후가 바뀌면서 지구가 바뀌고 있다. 계절이 바뀌고 있으니 이 가을도 바뀔 수밖에. 그렇다면 이제는 가을을 즐기는 방식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비봉 염암마을

마을소식

공영환-소영섭 사진작가 "완주는 낮섭입니다"

하리공간 완주온날서 특별한 사진전

지난 10월 4일 하리공간 완주온날에서 '완주는 낮섭입니다'를 주제로 한 2인 사진전이 열렸다. 충주에서 활동하는 공영환, 전주와 완주를 오가는 소영섭 작가가 각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완주의 자연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 전 유순상 화가가 현장에서 1시간 반 동안 생동감 넘치는 라이브 드로잉 쇼를 펼쳤다. 이후 두 작가가 바라본 완주를 담아낸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 대한 해석을 나누는 토크 쇼가 진행됐다. 익숙하고도 낯선 렌즈 속 풍경을 통해 완주를

재인식할 수 있었던 이번 사진전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 마무리되었다.

빈집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하리공간 완주온날은 지난번 '만경강 야간투어'에 이어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 놀라운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완주군 관광두레 황미선PD는 "빈집 재생이 단순히 건물의 재생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서로 교감하며 다양한 문화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장소로 자리 잡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사진 제공: 바라봄

완주마을이야기 완두콩
완주 CB공동체

- 발 행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 발 행 인 이용규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나들목로 338-33
- 대 표 전 화 063-291-8448 • 팩 스 063-261-8448
- 홈 페 이 지 www.wandookong.kr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완주.라00002 구독료 월 5,000원 후원 월 1만 원
 독자기고 및 제보 toktok1942@hanmail.net

심심한 완주 모이자! 모여!



바스락 가을의 소리가 들리는 선선한 10월. 건강에 유의하며 완주군 곳곳에 다양한 소식과 진행되는 프로그램 일정을 함께 해보자. 상기 일정은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각 프로그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심한 완주 사람들 고민하지 말고 여기로 모여!

고산 청년거점공간 '청춘 방앗간'

방앗간식탁 가을수다편

날씨가 좋은 가을 저녁 방앗간에 모여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가을밤을 마무리해 보자!

진행정보: 10월 19일 (토) 오후 6시~7시

시골, 여자, 축구 '복토크'



<시골, 여자, 축구>의 저자 노해원 작가님과 함께 그의 삶에 대한 진솔하고 유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세 가지 키워드만으로도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궁금한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10월 19일 (토) 오후 2시~4시

되살림장터

나에게 목은 짐이 새 물건으로 되살려지는 시간! 이웃과 함께 마음도 주고 받으며 다양한 물건들 중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보는 재미까지 방앗간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진행정보: 10월 26일 (토) 오후 2시~6시

글쓰기 모임



가을은 독서의 계절. 읽는 일에서 나아가 쓰는 일도 시작한다. 체력과 함께 필력도 훈련해야 하는 법. 서로의 생각과 일상을 나누고 싶은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10월 22/29일 매주 (화) 오후 2시~6시

오일 파스텔

오일 파스텔은 아주 무른 성질의 그림 재료다. 대충 그려도 그럴듯하게 나오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방앗간에 모여 다채로운 색깔로 칠해보자!

진행정보: 10월 25일 (금) 오후 6시 30분~8시 30분

목요 음악감상실

한국 대중음악 명반100 앨범리뷰, 배철수 음악캠프 20년 그리고 100장의 음반, 책을 길잡이 삼아 함께 모여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진행정보: 10월 24/31일 매주 (금) 오후 7시

어반스케치

방앗간에 응기종기 모여 기억하고 싶은 장소, 가보고 싶은 곳을 그림으로 그려본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10월 16/23/30일 매주 (수) 오후 7시

꾸러기 축구단

선선한 저녁 운동을 즐기고 싶다면 함께 공을 차보자! 체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10월 16/23/30일 매주 (수) 오후 7시

접수방법: 인스타그램 신청링크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00 김밥천국 2층
문의: 063-262-280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월,공휴일 휴무)
인스타그램: @cheongchon.

제1회 완주 반려견 홍보대사 선발대회



제1회 완주 반려견 홍보대사 선발대회는 내 반려견이 완주군의 대표 얼굴이 되어,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1년간 사료 무상 지원, 건강검진, 반려동물 용품 등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반려견홍보대사.com 홈페이지 또는 070-7798-8610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집기간: 11월 8일 (금)까지 *마감일 오후 5시까지
참가대상: 1살 이상의 건강하고 사회성 좋은 완주군 거주 댕댕이
지원서 접수일 기준 동물등록이 완료된 댕댕이
선발기준: 5명 댕댕이 (진, 선, 미3)
선발방식: 1차 서류심사, 2차 자유 면접 심사
유기견 출신인 경우 가산점 부여
활동기간: 1년
문의및접수: jvlab@naver.com



창작과 공유, 소통의 공간 '완주미디어센터'

+ "10월 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을 공씨네와 함께"

시골극장 공씨네 10월 상영 시간표를 공개한다. 푸른 하늘과 어울리는 <토요 극장>과 영화를 깊이 있게 해 줄 <저녁극장>, 느닷없이 영화 상영인 <기획상영>이 상영될 예정이다.

*은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10월 19일 (토) 오후 2시	스노우 퍼핀즈	애니메이션	전체 관람가
10월 26일 (토) 오후 2시	빌리와 용감한 녀석들	애니메이션	전체 관람가

*영화를 깊이있게 <저녁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10월 29일 (화) 오후 7시	동경 이야기	드라마	전체 관람가

*느닷없이 영화상영 <기획상영> *삼례 하리운동장에서 만나요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10월 26일 (화) 오후 5시 50분	선데이 리그	코미디	전체 관람가

문의: 063-262-1895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10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용진읍 "어려운 이웃을 알려주세요" 복지사각지대발굴 캠페인

용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소병오, 이애희)가 10월 12일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제34회 용진읍민의 날과 연계한 홍보 부스를 운영해 행사에 참여한 주민과 단체 등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소개, 착한가게·착한가정 후원자 발굴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특히, 최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군이 사회적 문제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변의 작은 관심과 제보에 함께하자고 말했다. 발굴된 위기가구는 보건·복지 상담을 통해 긴급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 등 공적 지원에 연계하거나 민간자원을 활용해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맞춤형 사례관리로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애희 용진읍장은 "민관이 힘을 합쳐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웃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복지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작은도서관협회, NH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비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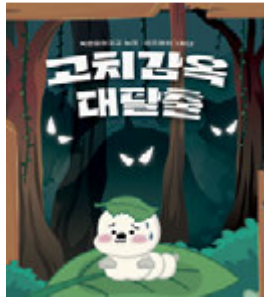
한국작은도서관협회(이하 한작협)는 NH작은도서관의 입주민 독서 문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문화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한다. 한작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전국 800여 임대단지 작은도서관 중 210개 단지 작은도서관을 용역 받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사업에는 총 300여 단지가 작은도서관활성화 사업을 신청해 210개 단지가 최종 선정됐다. 한작협 NH작은도서관지원센터는 LH 임대단지 입주민들을 위해 1~4차 연도 사업 단지를 구분해 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홍보·행사비,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 등에 대한 비용이다. LH아파트 입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 활동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

화산면, 취약계층 매주 1회 반찬 전달

화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송중택, 황호년)가 '희망찬(饑) 하루'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독거노인, 청장년 1인 가구 등 소외 계층에 밑반찬을 지원한다. 화산면은 사각지대에 놓인 15명을 선정해 총 6회에 걸쳐 매주 1회 반찬을 제공한다. 송중택 화산면장은 "추워지는 날씨에 더욱 외로울 수 있는 취약계층에 늘 주의를 기울이며 마음을 전하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어린이 문화기획단' 참여 학교 모집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4 어린이 문화기획단' 프로그램 참여학교를 10월 18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2024 어린이 문화기획단'은 지역고유 문화와 역사자원을 활용한 창의·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소개된 지역의 문화유산, 지역의 역사를 쉽게 접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교육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민들레역사문화연구소(대표 민들레)'와 함께하며, 복합문화지구누에(NU-E)에서 3가지 다양한 미션을 친구들과 협동하여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 공문을 확인한 후 구글 신청폼(<https://forms.gle/yMcox1qssn3WN14J7>)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공동체지원팀(☎070-4291-7636)으로 문의하면 된다.

행복완주 건강생활지원센터 '어르신 건강박사' 교육

행복완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보건교육을 강화해 올바른 건강지식을 지원한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어르신 건강박사' 프로그램은 잘못된 의료지식을 바로잡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처치방법을 교육해 지역주민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의 건강수요에 맞춰 프로그램 예비교육 및 내 건강 내가 알기(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대사증후군 지표 측정), 잘못된 민간요법 바로잡기 OX 퀴즈, 미술테라피를 통한 인지능력과 신체능력 유지, 스트레스 날리는 썩싱(sing sing) 음악교실, 심뇌혈관질환 강좌, 언제 어디서나 건강백세체조로 구성됐으며 매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근거가 부족한 민간요법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민간요법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알리는 교육도 진행된다.

문의: 063-290-3126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지원센터팀

2024 완주문화예술제 예술로충전



완주군 대표 예술축제인 '완주문화예술제'가 10월 18일과 19일 이틀간 복합문화지구 누에 일원에서 펼쳐진다. 완주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위원장 전일환)에 따르면 '예술로 충전'을 주제로 올 10회째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예술제 10주년을 기념해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을 대폭 확대해 클래식·판소리·재즈·라이브드로잉·댄스·강연·문화체험 등 40여 개 프로그램에 총 250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출연, 보다 새롭고 흥미로운 예술 프로그램을 선사할 예정이다. 늦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복합문화지구 누에 잔디마당에 메인무대가 설치되어 주요 무대공연들이 진행된다. 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정보는 완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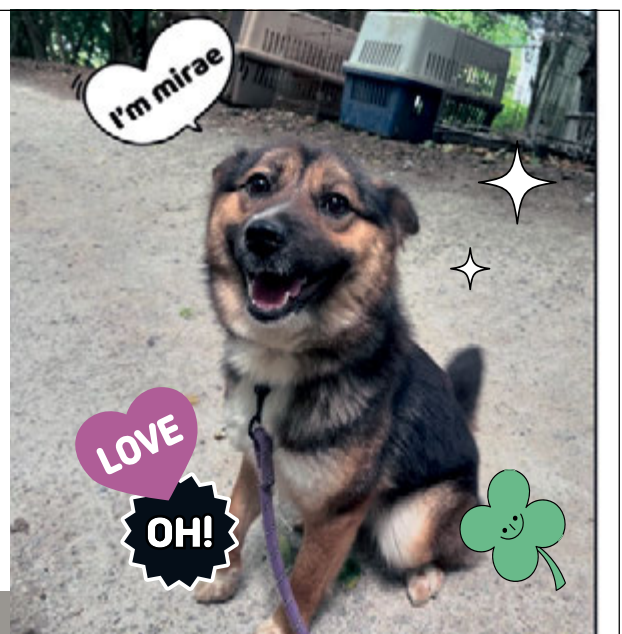
문의: 063-262-3955

“반려견, 사지 말고 입양해요”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 미래(♀)
사랑스런 미소를 가진 미래!

- * 직장인 봉사자들이 홍보와 상담 진행 중으로 입양 상담 외 구조 등 기타 문의는 받지 않고 있다.
- 입양을 기다리는 더 많은 아이들이 보고 싶다면?
인스타그램 @wanju_star (별빛유기동물지킴이)

체중: 약 10kg
나이: 1~2살 추정
건강상태: 중성화 완료
미래는 아주 부드럽고 멋진 모색을 가진 아이이다. 사람들에게 애교가 많으며 산책도 아주 잘한다. 이런 미래에게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며 사랑을 베풀어 줄 가족이 절실히 필요하다.
입양 신청 방법: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 접속하여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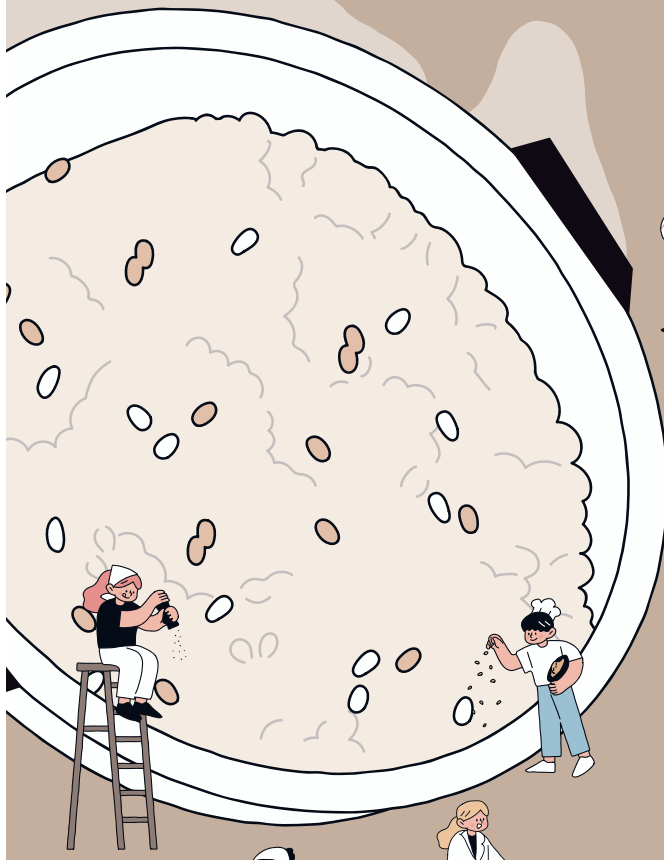
★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일이므로 신중히 고민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

2024년 고산권벼두레

햅쌀밥잔치

잔치날: 2024. 11. 9.(토) 11:00~16:00

장 소: 고산미소시장 내 (무대 및 근처)



밥쇼
1 햅쌀밥 짓기 대회

사진 참가접수 받은 15팀에게 햅쌀 1kg을 나누어 드립니다.
화구 등은 참가자들이 직접 준비해 오세요.
품평회를 거쳐 시상합니다. 상품은 삼산도가 막걸리세트!

밥줍쇼
2 식사나눔

- 포트락 형식으로 진행.
- 밥쇼와 동시에 무생채, 어묵탕, 떡볶이는 함께 준비

퀴즈쇼
3 벼두레 퀴즈쇼

- 벼두레 및 벼농사 관련 문제
- 상품 : 쌀

제력쇼
4 천하장사 선발대회

쌀포대 들고 스쿼트, 릴레이 계주

놀이쇼
5 추억이
곰목놀이 Zone

사진전
6 벼두레 사진

판매쇼
7 쌀 매대 운영



일회용품 대신 개인용 컵과 식기도구(그릇+수저)를 준비해주세요.

참가 신청-문의 010-5932-5714, 010-9866-9221